

'판소리·창극' 주연 못지않은 조연

소리꾼과 호흡 맞춰 복치는 '고수' 지문·해설 소리로 전하는 '도창' 극 조율하며 시너지...완성도 높여 '합' 맞을 때 카타르시스 느껴

판소리나 창극 공연장을 가면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소리꾼이다. 이들은 탁월한 카리스마와 구성진 성음의 '맛'으로 완창 공연부터 눈대목까지 전통 공연을 이끄는 '주역'이다.

빛나는 이들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조역'들은 또다른 '주인공'이다. 몇 시간 내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소리북을 치는 '고수(鼓手)', 판소리가 극으로 전환될 때 등장인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지문·해설을 소리로 전하는 '도창(導唱)' 등은 화려한 조력자다. 그럼에도 일부 관객들은 고수를 '북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거나 도창자를 단순한 해설자로 생각하곤 한다.

주역 이상으로 전통예술 공연을 빛내는 '화려한 조역' 세 명을 만났다.

먼저 광주시립창극단 김준영(41) 고수는 전남 예고,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한 뒤 2015년 광주시립창극단에 입단, 전남대 대학원에서 국악·타악 전공을 수료했다. 2013년 보성소리축제 장관상, 장흥가무악전국제전 장관상 및 14년 전국고수대회 국무총리상 등을 받기도 했다. 그는 27일 광주시립창극단 공연 '판소리 감상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창극은 여러 악기, 정해진 악보 없이 수성(隨聲)반주 등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 장르이다. '창극 고수'는 '판소리 고수'에 비해 '반주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단의 한배(리듬)를 조절해 소리를 보완해 주고, 창자가 행여라도 실수할 때 가사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3-8시간 동안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완창 발표회 때, 고수가 소리꾼의 '공백'을 채워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 씨 또한 '춘향가' 중 '와상'에 진양조 대목'을 공연하던 당시 소리꾼이 가사를 잊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운 경험이 있었다.

혹여 창자가 아닌 고수로서의 아쉬움은 없는지 물었다.(고수로 국악을 하다가 소리꾼으로 전향하는 국악인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지 궁금했다)

김 고수는 "소위 '완벽' 공연을 하면 막이 내릴 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돌아앉아 있는 탓에 관객들에게 원목 얼굴로만 인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고수들 사이에서 신재효 선생의 '판대가'를 인용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판대란 첫 번째가 인물치레, 둘째가 사설치레, 셋째가 너름새라는 것이 바로 그것.

그는 "물론 소리꾼에 비해 고수가 덜 주목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처럼 소리꾼과 고수는 서로 시너지를 내는 관계다"라며 "좋은 공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주·조연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고수



이당금 배우(도창 역)



지난해 9월 광주예술의전당 창극 '수궁 어벤저스'에서 도창(판대) 역을 맡은 이은비 소리꾼.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굳은살이 밴 그의 손은 모듬북, 소리북, 연희놀이까지 섭렵해가는 긴 국악 여정을 보여줬다. 대학 2학년까지는 뿔과리를 잡는 등 화려한 연희에 빠져 있었지만, 이후 비교적 재미가 없는 장단을 공부한 이유는 소리꾼과 '합'이 맞을 때 얻는 카타르시스 때문이었다.

한편 '도창'은 판소리가 무대 위의 극으로 전환될 때 등장인물이 소화하지 못하는 지문과 해설을 소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다. 명창이나 소리꾼들이 주로 맡지만, 특별히 소리를 전공하지 않은 극 예술인이 도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루트머지 주식회사가 5-6월 매주 일요일마다 선보일 예정인 '도창이 그리는 광주의 맛과 풍류'에서 도창을 맡는 이는 공연계에서 알려진 이당금 배우다. 예술이백그라운드 대표인 그가 이번 작품 세 개 파트에서 극을 풀이한다.

이당금 배우는 연극계 30년 경력의 지역 대표 배우 가운데 한명이다. 따로 소리를 배우지 않았지만, 루트머지 측은 "기획 단계부터 이 대표를 염두에 두고 공연을 설계했다"고 한다.

이 씨는 "연극으로 치면 막간극 또는 극중극 역

할에 상응하는 것이 '도창'이라 생각한다"며 "단순한 '해설자'로 여기기 쉽지만, 주역들이 작품의 모든 서사를 구현할 수 없기에 도창은 전통 공연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광주예술의전당 '창극 수궁 어벤저스'에 출연했던 광주시립창극단 소리꾼 이은비(여, 41)의 '판대' 역도 도창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판대' 역은 전통적인 도창은 물론, 객석과 단상을 오가며 노래하거나 극을 풀이하는 역할이었다. 고전적인 도창 형태를 확대했다는 평가다.

이 씨는 "공연 성격상 매년 다르지만 '도창'은 연배가 있는 선생님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며 "판소리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관객과 소리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관점에서 전통 공연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이어 "도창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배역인 것은 판소리 대목 전체와 성음을 이해해야 하고, 직접 소리까지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주역 못지 않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감조'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학들'·'시와사람' 봄호 출간

2020년대 젊은 작가들 좌표 조형 시와 회화의 독자성·친연성 다뤄

지역에서 발행하는 문예지 '문학들'과 '시와사람'이 최근 봄호를 펴냈다. 문예지를 발간하는 일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 75호, 111호를 펴낸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문학들'은 이번 봄호에서 특집으로 '2020년대 젊은 작가들의 좌표'를 주제로 엮었다.

송승환 평론가는 '얼굴없는 목소리·살아남은 자, 백은선의 시 쓰기'에서 2020년대 한국에서 첨예한 글쓰기의 목표인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에 대해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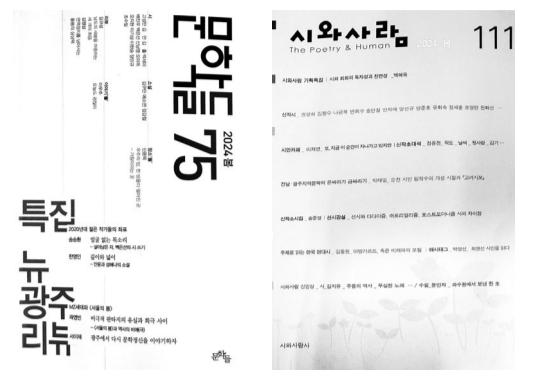
그는 "나 스스로를 고유 상품 브랜드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표상 작업'의 일종이라고 본다.

한영인 평론가는 '깊이와 넓이-안운과 성해나의 소설'을 주제로 한 글에서 안운의 수평 운동, 성해나의 수직운동이 구현해내는 십자 좌표 속에서 깊이와 넓이라는 위상학은 2020년대 한국의 젊은 작가들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좌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뉴광주리뷰 'MZ세대의 '서울의 봄''에서는 광영빈의 '비극적 판타지의 유실과 희극 사이-서울의 봄'과 역사의 비애(극), 서이제의 '우리는 날마다 축제, 봄은 우리의 것'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이야기 '돌'에 이우주의 '오늘도 괜찮아', 리뷰에 김규성 시인이 '부분은 전체보다 크다'(임동혁 시인), '당신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별이 있어요'(최미정), '웃음 캡슐'(박정인)을 다뤘으며 김영삼 평론가는 이진 소설집 '소설의 유령'을 특유의 시각으로 평했다.

'시와사람'은 이번 봄호에서 '시와 회화의 독자성과 친연성'을 특집으로 다뤘다. 시인이자 화가



백혜옥과 문학평론가인 강경호 시인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강경호 시인은 시와 미술을 함께 경험하면서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백혜옥 화가는 "저에게 있어 회화와 시는 각기 이질적인 작업의 결과물이 아닌 상호 보완적작업의 의미를 지닌다"며 "색과 언어라고 하는 질료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질료의 특성을 각 장르에서 달리 살려보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시와사람 시인카페'에서는 얼마 전 시집 '화요일이었고 비는 오지 않았다'를 펴낸 이재연 시인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연 시인은 앞으로 쓰게 될 시의 방향성에 대해 조금은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내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 그 사유들이 조금이라도 시에 반영되어 있다는 평을 듣고 나면 그것이 좀 신기하기는 하다"며 "앞으로도 궁구하고 해마다, 해마다 시인들이 모아지면 또 매듭을 짓지 않을까 미루어 생각해본다"고 했다.

이밖에 신작 초대석에 정윤천 시인의 '적도'와 '나의 시론'이 실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들, 총선 후보에 '기후 위기'를 묻다

광주시민방송 다음달 4일까지...라디오·유튜브서 진행

광주 청년 66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후보 8명을 초청해 의제를 묻는 선거방송이 진행된다.

광주시민방송이 지난 25일부터 4월 4일까지 희망 후보별 60분 선거 방송을 진행 중이다. 광주 8개 지역구(북구갑/을, 서구갑/을, 동남구갑/을, 광산갑/을) 후보가 출연할 예정이며 현재 출연진 조율 중.

방송은 광주FM 88.9MHz에서 생방송 및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며 강령명 방송본부장 또는 유장석 DJ가 진행을 맡는다.

출연자들은 '출마의 변, 공약 브리핑'을 비롯해 '약자는 기후위기의 최일선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예방, 피해 원상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 정책, 법 제도 마련 의지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은 광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의 '탈지역' 문제, 인구 유출, 지역 소멸 위

협, 인재 유실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온라인 채널로 광주시민방송 청년 정규방송활동가(전현직) 40명, 기후·청년활동가 26명 총 66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후활동가(1명), 청년활동가(1명)이 자리한다.

광주시민방송 양세진 PD는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시민들이 직접 라디오를 진행하는 시민 참여형 방송인데, 선거 시국을 맞아 역할에 대해 고민해 왔다"며 "그 일환으로 기후위기와 청년 취약계층 의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의 변, 주요 공약, 기후와 청년 의제를 논의하는 것 외에도 선출직질문의응답과 실시간 소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지역 시민들이 후보들의 의견을 공청하며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 동림지점 062)513-852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 온암지점 062)527-3295~6 | 배틀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 온천지점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